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1~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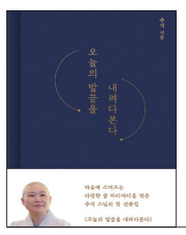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적명을 말하다 (선사들이 들려주는 수좌 적명의 삶)	유철주	사유수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 선지식의 코신 사랑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3	요가디피카 (아헹가요가) 육체의 한계를 넘어 아헹가 / 현천스님	선요가	
4	제로 :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 상태	천시아	젠북
5	회집본 무량수경 : 유쾌하고 풍성한 정토세상	도암스님	맑은소리맑은나라
6	우리말로 읽는 부처님 말씀 능엄경	각성스님 / 용하스님	비움과소통
7	데즈카 오사무의 붓다 : 깨달음 이야기	데즈카오사무 / 정상교	바다
8	티베트 사자의 서 (개정완역)	빠드마쌈바와 / 중암스님	불광출판사
9	명상수행의 바다 (맛지마니까야 엔솔로지)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10	지금 이대로 좋다	법륜스님	정토

책세상

힘겨운 오늘 위로하는 깊은 반조

〈返照〉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

주석 스님 지음/ 담앤북스 펴냄

1만4천원

'들여다봄'의 위로 · 공감 에세이

대중과 호흡하면서 느낀 이야기

잡지와 신문 밴드 글 모아 출간

"지금의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해"



저자 주석 스님.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코로나가 삶을 위협해도, 억수 같은 비가 모든 것을 집어삼켜도, 살아 있는 한 우리는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사랑을 하고 또 꿈을 꿉니다."

부산 대운사 주지 주석 스님이 첫 산문집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를 출간했다. 책은 스님이 그동안 불광, 국제신문, 불교신문 등 잡지와 신문에 기고한 글과 밴드에 올린 글 등을 묶은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오늘을 이야기하고 그 힘겨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이야기한다. 세상을 바라보고 대중과 소통했던 순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들은 생활 속에서 접한 직접적인 경험담뿐만 아니라 벽에 걸린 그림이나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성찰하는 반조의 순간도 섬세하고 진솔하게 그리고 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람과 인연', '내 마음'을 주제로 한 이야기, 수행하고 신도들과 함께 공부하는 출가자로서의 일상도 이야기한다.

주석 스님은 종교가 일상과 괴리된 것이 아니며 음악, 문학, 예술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전시와 콘서트 등 다양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 '쿠무다'를 운영하고 있다. 책은 저자가 종교와 일상의 경계를 허물고 수행자와 한 인간으로서 대중과 호흡하면서 느낀 사람살이, 세상살이, 그 속에서 깨닫게 된 지혜와 이해, 그리고 자신과 대중에게 보내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돌담을 쌓는 석공을 보고 '조화로운 세상'을 생각하고, 선물로 받은 음악 파일에서 '고정관념'을 깨닫게 됐던 스님은 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중 모두에게 필요한 위로를 전한다.

그런 스님의 위로는 자신의 일상과 인연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들여다봄'에서 왔다.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모두가 겪는 일상 속에서 소소하게 깨달은 이야기들이기에 독자는 책을 읽는 순간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의 글을 '들여다봄'이라고 정의했다. 스님의 '들여다봄'은 지혜가 되고, 그것이 모두의 일상을 다시 비추는, 반조(返照)로서의 책이 된 것이다.

책은 가로 12cm, 세로 19cm 크기로 손에 가볍게 잡힌다. 편하게 쉴 때 틈틈이 읽을 수 있길 바라는 스님의 의도다. 책은 총 3개의 제목으로 구성됐다. '내 마음 담은 너의 표정', '내 마음의 잔물결', '오늘은 햇살 한 잔 어때요?'이다. 3개의 제목은 내용적인 분류보다는 글이 실린 매체별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어느 페이지든 읽고 싶은 부분을 선택해 편하게 읽으면 된다. '내 마음 담은 너의 표정'은 〈불광〉, 〈해인〉 등 불교잡지와 밴드에 올린 글들을 묶었다. '내 마음의 잔물결'은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등에 기고한 글이다. 그래서 종교색은 최대한 배제했다. '오늘은 햇살 한 잔 어때요?'는 불교신문에 실었던 글을 모았다. 출가자로서의 수행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드러난다. 책 사이에는 시처럼 짧은 글이 삽입되어 있다. 밴드 회원들과 소통하며 짧게 나눴던 글이다. 책을 구성하는 기고 원고와 절묘하게 어울려 이야기의 여운을 더한다. 특히 책 표지 프로필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스님의 목소리로 책의 내용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매주 한 작품 씩 스님이 직접 녹음한 음성으로 업로드 될 예정이다.

주석 스님은 "과거는 흘러가는 것이고 미래는 오지 않은 것이다. 과거의 고통과 미래를 걱정하며 다가오지 않은 시간들을 걱정하지 않고 오롯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공유하고 싶었다. 그것이야말로 지금처럼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다"고 말했다.

스님은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를 제목으로 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의 발끝'이란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한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에 대한 걱정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이켜 자신이 서있는 곳을 바라보라는 당부이다.

주석 스님은 "도반스님과 책은 절대 내지 말자는 약속을 할 정도로 출판을 마음에 두지 않았는데 시절 인연으로 이렇게 책이 나왔고 세상과 만나게 됐다"며 "미래는 이렇게 알 수 없으니 지금 이 순간 제대로 웃자"고 했다.

주석 스님은 1988년 법주사 수정암에서 승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현재 스님은 BBS 불교방송에서 '주석 스님의 마음대로(大路) 라디오'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대운사 주지, 문화예술법인 쿠무다 이사장을 맡고 있다. 스님은 문화 포교의 파격적인 포교법을 제시하며 새로운 포교를 선도하고 있다. 스님이 운영하는 문화예술법인 쿠무다는 음악, 미술을 포함해 모든 예술 분야를 포용하고 불교라는 종교를 넘어서 불교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의 모범을 보여준다. 새롭게 건립하고 있는 쿠무다 명상문화센터(가칭)는 예술인을 위한 공연장, 명상센터, 북카페, 방송국, 바다법당 등 말 그대로 모든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다.

詩로 읊은 10 · 27의 슬픔



군화에 짓밟힌 법당

혜성 스님 / 동쪽나라 펴냄 / 1만원

"아무리 빌어도 자꾸 왜 이러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 내가 죽을께요. 정말 맞아 죽고 싶지는 않아요. / 아무리 아프다고 소리 질러도 소용이 없다. 참고 참고 견디다 못해 또 죽을 힘을 다해 비명의 소리를 질러본다."

'10 · 27 법난'은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슬픈 사건 중의 하나이다. 올해로 40주년을 맞는 슬픈 역사를 엄숙하게 생각해보는 시집 한 권이 출간됐다. 당시 피해 당사자였던 혜성 스님의 〈군화에 짓밟힌 법당〉이다.

10 · 27 법난은 1980년에 신군부 세력이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명목으로 군인을 동원하여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 5천여 곳을 수색하고, 조계종의 스님 및 불교 관련자 150여 명을 강제 연행하여 고문, 취조한 사건이다. 법난이 일어났던 당시 모든 국내 언론은 신군부가 발표한 내용을 사실로 보도했고, 이에 따라 법난 피해자들은 신체적인 고통에 더하여 정신적인 고통까지 입게 되었다. 당시 서울 삼각산 도선사의 주지였던 혜성 스님은 당시 가장 큰 피해자 중의 한 사람이다. 스님은 계엄군에 연행되어 폭압적인 조사를 받았으며, 출감 후 입적할 때까지 고문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1989년 11월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건이 국가에 책임을 있음을 인정했고, 2018년 4월 1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불교계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혜성 스님은 법난 이후 틈틈이 작은 공책에 자신의 소회를 적었다. '일기'라고도 할 수 있고, '시'라고도 할 수 있는 67편의 글은 1997년 청담문도회 주관으로 간행된 〈진불장 이혜성 스님 회갑 기념 불교 문집-이 마음에 광명을〉에 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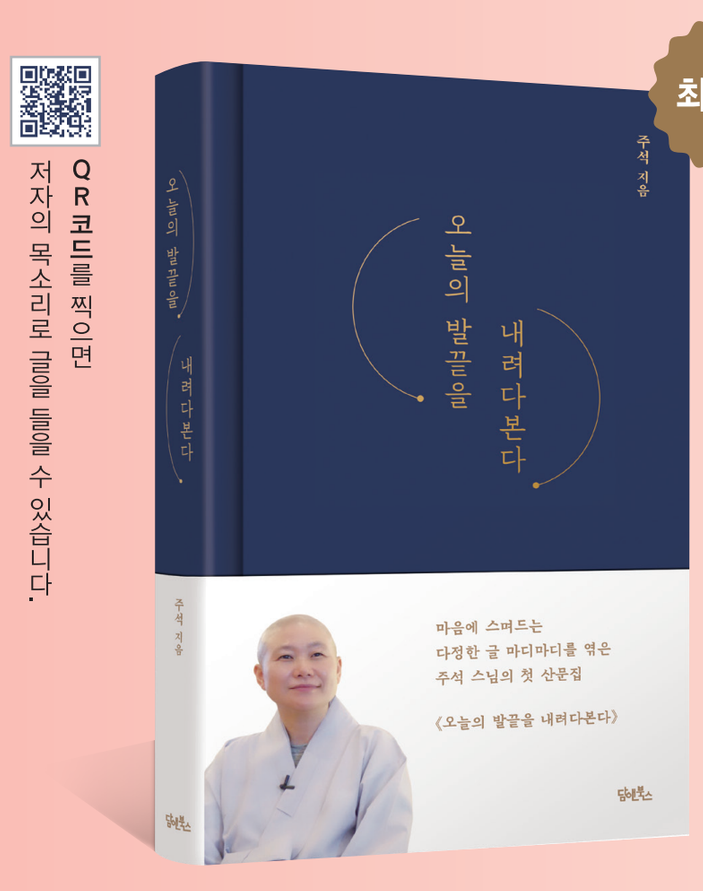
이번 책은 1997년 간행 문집에 실렸던 글과 당시 취재 기자, 불교전문 사회학자, 문학인이 쓴 글들을 묶은 것으로, 10 · 27 법난 당시 혜성 스님을 비롯한 피해자에게 가해졌던 끔찍한 가혹행위와 그것을 감내하는 피해자의 생생한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또한 있어서는 안 될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이해하고 용서하고자 하는 감동적인 시들도 볼 수 있다. 더하여 혜성 스님의 일생을 정리한 글, 10 · 27 법난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글과 이번 시집에 나타나 있는 스님의 육성을 문학적인 입장에서 분석한 글들을 부록으로 실었다. 이번 책은 '시집'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됐지만 문학적인 가치로서만이 아니라, 한 인간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남긴 생생한 육성과 법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0 · 27 법난의 역사적 교훈과 의미 그리고 아픔과 통곡이 보다 많은 대중에게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혜성 스님 詩 60여 편

기자 · 문학인 등의 글도 실어

가혹행위 감내한 생생한 육성

혜성 스님은 1937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났다. 대전공업고등학교, 실달승가학원을 거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세에 청담 대종사의 제자로 출가한 뒤 혜성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이후 스승을 따라 한국 불교의 정화불사에 헌신하였으며, 1964년 도선사 주지로 취임해 도선사를 한국불교 최대 사찰 중 하나로 일구는 한편, 조계종의 주요 직책을 맡아 한국불교의 진흥에 크게 기여했다. 중앙승가대 학장으로 부지 5만평을 학보하고 당해 대학을 4년제 대학 학력인정 각종학교로 인가받았으며, 청담중고등학교와 혜명복지원을 설립하고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신당어린이집 원장을 맡았다. 1980년 10 · 27 법난으로 한 달 동안 고문과 취조를 당했으며, 강제로 도선사 주지 직과 함께 승려 자격을 잃었다. 후에 승려 자격을 회복했으나 당시의 고문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다. 2018년 7월 25일 도선사 염화실에서 원적에 들었다. **박재완 기자**



QR코드를 찍으면
저자의 목소리로 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
사람살이
나누는
다정한 문장들

이 글은 제 나름의 '들여다봄'입니다.
부족하지만 세상으로 한 걸음 다가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만물의 이치를 하나둘 배워가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진 것입니다.

_머리말 중에서

주석 스님의 첫 에세이

오늘의 발끝을 내려다본다

주석 지음 | 220쪽 | 양장 제본 | 14,000원

| 주석 스님은

부산 대운사 주지 및 문화예술법인 쿠무다(KUmuda)의 이사장이다.
BBS「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과 BTN「세상만사 우리들의 토크쇼」를 진행했으며,
현재 BBS「주석 스님의 마음대로 라디오」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방송과 기고 활동 외에도 쿠무다 밴드를 통해 일상의 소중함과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담앤북스 문의 02)765-1251 가까운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